

**제1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
(속표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곽영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통문화의 한류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지역에서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최근에는 K-POP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얼마나 갈지, 우리 자신이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 밤에 서울광장에서 가수 사이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문화의 엄청난 저력과 가능성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사이 본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가장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런 저력과 가능성의 원천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류를 어떻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구현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1990년에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2007년에 <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그리고 올 초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전통문화를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야말로 우리 문화의 저력이자 가능성의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론과 현실에 두루 밝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 포럼이 만들어낼 성과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 김구선생은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서연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장님과 발제를 맡으신 이원태 연구위원님,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님, 그리고 포럼 위원님들과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 정



13:30~14:00	참가 등록
14:00~14:15	일정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 차관
14:15~14:50	<p>기조강연 글로벌시대 전통문화의 재조명</p> <p>서연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p>
휴 식	
15:00~15:50	<p>사회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p>
	<p>제1주제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p> <p>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p>
	<p>제2주제 한류와의 관계에서 본 전통문화 브랜드 제고 방안 - 공예를 중심으로 -</p> <p>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p>
15:50~16:40	<p>1주제 김동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p>
	<p>토 원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p>
	<p>2주제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p>
	<p> 조회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장</p>
16:40~17:00	청중 질의 및 마무리



기조강연 / **글로벌시대 전통문화의 재조명**

- **강연** **서연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장 1

제1 주제 /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

- **발제**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7
- **토론** **김동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51
- 원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55

제2 주제 / **한류와의 관계에서 본 전통문화 브랜드**

제고 방안 - 공예를 중심으로

- **발제**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 59
- **토론**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63
- 조희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장 69

기조강연

글로벌시대 전통문화의 재조명

서연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I. 문화의 범주

교통수단과 매스미디어 같은 첨단과학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온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현상들을 빠르게 접촉할 수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 문화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일부 계층은 과거부터 전승되는 문화를 선호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 나타나는 문화에 감염되듯이 동화되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 분야와 분야, 장르와 장르 사이의 교류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문화를 폭넓게 공유하고, 또한 디지털 매체로 소통하는, 이른바 글로벌시대, 디지로그시대에 살고 있다.

전통문화를 재조명하려는 이 소론에서, 먼저 전통과 관련된 몇 가지 문화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서론을 삼고자 한다. 야만·미개·문명사회라는 문화진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일러(Tylor, E. B.)가 지적한 것이 잔존(殘存)의 개념이다. 당초에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다가 새로운 사회 상태로 옮겨가면서 의미를 상실한 채 지켜지고 있는 관습을 그는 잔존문화로 정의했다. 문명의 차이를 넘어서 여러 관습 사이의 유사관계를 재확인하기 쉽게 한 것이 잔존이며, 이 현상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동일성을 진화의 동일성으로 대체하게 되었다.¹⁾

문화의 전파(傳播)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슬러(Wissler, C.)는 자연적인 전파와 의도적인 전파를 규명해냈다. 어떤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시간적으로, 서서히 전파되는 현상이 전자이고, 개척활동·전쟁·포교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전파시키는 현상이 후자라는 것이다. 이런 전파론은 문화의 고유성(固有性)에 대한 낙후된 인식을 불식시켰고, 현존의 문화가 여러 문화의 전파를 통해 수용되고 재생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했다. 아

1) Tylor, E. B., *The Origin of Culture*, Harper & Row, 1958 참조.

올려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작업이 방법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었다.²⁾

문화의 기능에 관한 연구는 뒤르켐(Durkheim, E.)이 명시한 기능(機能)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기능론은 문화와 사회를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고, 각 구성요소들이 현존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말리노우스키(Malinowski, B.)는 개인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욕구에 대한 기능을 강조한 데 비해서, 래드클리프-브라운(Radcliffe-Brown, A. R.)은 사회구조 속에서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³⁾

베네딕트(Benedict, R. F.)는 문화의 연구에서 관습(慣習)을 중시했다. 서구 문명을 인류문화의 전형(典型)으로 간주하는 종래의 풍토에 대하여, 그녀는 모든 문화양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관습을 통해서 다른 문화를 보아야 하며, 관습이야말로 문화를 보는 렌즈라고 했다. 역사란 특정 문화가 그 자체의 가치 질서를 기준으로 제도 및 관습의 전파를 취사선택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녀는 보았다.⁴⁾

새로운 신진화론자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White, L. A.)는 문화의 테크놀로지를 중시했다. 문화는 기술체계(技術體系), 사회체계, 관념체계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체계는 사회체계를 결정하고, 예술 및 철학 등 관념체계도 사회체계를 매개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결국 문화는 기술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진화의 단계를 재는 최선의 지표는 '1인당 연간 포착 에너지양'이라고 했다. 즉 'E(에너지) × T(테크놀로지) → C(문화)'이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의 메커니즘으로서, 자연계의 에너지를 포착하여 그것을 사회집단의 존속과 향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진보해 간다고 그는 생각했다.⁵⁾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C.)의 문화구조론은 정신적 탐구를 전제로 한다. 그는 대상이 되는 정신으로부터 구조(構造)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는 정신 가운데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논법, 논리 자체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스스로의 논리를 구조라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2) Wissler, C., *Man and Culture*, New York, 1923 참조.

3) Malinowski, B., *Magic, Science and Religion, and Other Essays*, Doubleday Anchor Books, 1954 참조.

Radcliffe-Brown, A. R.,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Cohen & West, 1952 참조.

4) Benedict, R. F., *Patterns of Culture*, The New American Literary, 1934 참조.

5) White, L. A., *The Evolution of Culture*, McGraw-Hill Book Co., 1959 참조.

그의 구조론은 하나의 사유방법이자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⁶⁾

상징문화론자의 한 사람인 터너(Tuner, V. W.)는 치료의례에 큰 관심을 두고 상징을 논의했다. 상징이란 신체적·도덕적·정치경제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서, 상징의 힘은 부족사회에서는 통과의례의 경계(성인식의 경우, 의례 도중의 어른도 아이도 아닌 상태) 및 역사적인 경계(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상태에서 현저하게 발견된다. 또한 상징은 무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해 의미가 변화해 간다는 사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은 잠시 잊었던 상징을 상기하여 그것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했다.⁷⁾

문화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생성된 시스템 또는 텍스트라고 정의한 사람은 기어츠(Geertz, C.)이다. 언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성된 시스템이자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이나 텍스트는 분석되고 해석(解釋)되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해석학이라는 용어는 이런 연유로 생겼다. 문화는 표면에 나타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마치 텍스트를 분석하듯이,ダイナ믹하게 생성되는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발견함으로써 그 상징과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II. 전통문화

전통에 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전통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망(意味網)을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전통을 인식하는 시점(時點)은 현재이며, 인식자(認識者)는 현대인이라는 사실이다. 현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위치에서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진보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은 잔존문화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의미를 상실한 채 전승(傳承)되는 문화이기보다는, 현대에도 어떤 가치와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응용하기에 따라서 전통은 미래의 새로

6) Lévi-Strauss, C., 荒川幾男他 譯, 構造人類學, みすず書房, 1972 참조.

7) Tuner, V. W., *The Ritual Process :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1969 참조.

8) Geertz, C.,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s, Banton, M.(ed.)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U.S.A. Monographs, No.3. Tavistock P., 1966 참조.

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전파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은 어디까지나 고유한 문화이고 '순수한 우리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낙후된 생각이고 비과학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기존의 그들 문화와 바람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유동하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재생산해 온 것이 시대를 이어가며 전통을 이룬 것이다.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고유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성적인 양식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문화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가 세계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관습은 문화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막연하게 관습이라고 하지만, 관습에는 퇴보적인 것, 진취적인 것, 특수층에 한정된 것, 대중적인 것, 전형적인 것, 비전형적인 것, 미풍양속, 나쁜 습관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낡은 관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관습을 취사선택하고 동시에 진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통의 내용이며 전통의 진취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 조지훈은 전통과 인습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통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살아 있는 과거이지만, 그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전통을 버려야 할 인습(因習)의 뜻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전통을 찾다가 보면 인습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깝더라도 전통은 인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나쁜 인습을 타파하려다가 좋은 전통마저 깨뜨리게 되는 논리적 귀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깨뜨린 인습에 대치할 새로운 전통의 바탕을 상실하고 당황할 것이다.”⁹⁾

앞서 언급한 고유성과 원형성(原型性)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심층심리학자 융(Jung, C. G.)은 숭한 꿈을 분석한 연구로 유명하다.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 자주 나타나는 그림자, 아이, 우월한 여성인 어머니에 대응하고 반대하는 소녀는 아주 규칙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의식의 산물이고, 원형성이라 명명할 만하다고 했다.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신화·의례·형상예술의 화소(話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꿈, 또는 정신질환자의 망상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인류가 지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무

9)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의,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사, 1996, pp.209-210.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고유성은 변화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쉽사리 잘 변화하지 않는 전형적(典型的)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원형성은 개인적인 무의식의 수면 아래 잠재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무의식이라 할 수 있다.¹⁰⁾

문화학자 정수복은 전통과 선택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통은 언제나 선택적 전통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전통은 과거로부터 대를 물려 내려온 중립적 유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시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의 요소를 선택하여 보존하고 재구성한 결과이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변화하지 않은 진실이 아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전통은 특정한 요소가 강조되고 선별되는 반면, 다른 요소는 무시되거나 제외되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 재창조된 전통이다.”¹¹⁾

1940년에 작고한 벤야민(Benjamin, W.)은 기술복제시대라는 문화개념을 부각시켰다. 원작(original)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원작의 진품성(眞品性)이라는 개념을 이루며, 이 진품성의 대상이 오늘날까지 ‘그것 자체이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는 정체성을 면면히 전해준 전통적 관념이다. 진품성의 영역 전체는 기술적 복제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고, 다른 어떤 복제의 가능성에서도 벗어나 있다. 진품은 손으로 이루어진 복제에 대하여 위조품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고유한 미학(가치 및 아우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진영상에 의한 기술복제는 원작에 대한 수공적(手工的)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이루었고,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¹²⁾

이런 기술복제시대에 전통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새로운 복제기술의 첨단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미래를 향한 가치창조의 방법과 내용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한 마디로 ‘자기의 존재성을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체계가 전통에 값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행동체계가 바로 정체성이다. 오늘날 영상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연과 공연예술은 영상에 대응하여 종래보다 더욱 새로운 행동방식과 양식, 주제를 심화시키며 독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0) Laszlo, V. S. (ed.), *Psyche and Symbol: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C. G. Jung*, Anchor Books, New York 1958 참조.

11)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2007, p.57.

12)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도서출판 길, 2009, pp.45-46 참조.

발터 벤야민, 반성환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년 참조.

Ⅲ. 전통과 창조

우리는 전통문화를 문화재(文化財)로 관리, 응용해왔다.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보존과 보호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 특히 정신문화와 비(非)물질문화의 성격이 짙은 문화재의 국가보호는 '법규에서 제외된 문화재'들에 상대적인 차별을 갖게 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덜 중요한 문화'라는, 일반인들의 차별의식은 끝내는 숭한 문화재들을 망각케 하고, 생활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문화재 보존의 정책이 필요한데는 이런 사유도 공존한다. 여기서, 지정문화재만이 아니라 도처에 존재하는 비지정문화재들도 전통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961년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설립된 문화재관리국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개편이었다. 또한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지난날의 조선고적 급(及)유물 보존규칙(총독부령, 1916), 조선보물 고적 명승기념물 보존령(총독부령, 1923), 일본문화재보호법(1950), 대한민국문화보호법(1952)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이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그해 연말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지정사업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통문예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거국적인 노력의 일단을 시사한다. 중요무형문재 지정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갯일, 판소리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¹³⁾

유형문화(물질문화)에 대하여 무형문화(비물질문화)는 그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곧 문화재인 셈이다. 문화기능론에서 래드클리프-브라운이 지적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예능 보유자(保有者)로 규정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보유자는 전통문화 전승의 주체로서 교육과 공연과 이론연구를 실제로 실연(實演), 실천(實踐)하는 기능인이다.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실연(實演)을 통해서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문화'이므로 원형(原型) 그대로 보존되거나 계승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공예품은 유형문화재이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기술은 무형이다. 무형문화재의 실연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다소의 변화, 변형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형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되고 원

13) 이장열, 한국무형문화재정책, 관동출판, 2005 pp.49-60 참조.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형문화재의 이러한 특징을 단점(短點)으로만 속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장점, 도약대(跳躍臺)로 활용해야 한다.

원형의 변질과 망실이 아주 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문화재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무형문화재로서의 목록해제(目錄解除)는 이런 개념과 상관된다. 표현방식은 시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금씩 변화한다고 해도 문화재가 지닌 근본적인 정신과 이상, 예술적 가치지향을 잃지 않으려는 순수한 노력 속에서 원형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형이야말로 문화발전의 원천(源泉)인 것이다. 아울러 원형의 진실성에 대한 판별은 해당 분야의 고도한 전문적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한 국가보존책을 분명하게 수립한 점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만, 원형과 전승자에 국한(局限)된 지정방법, 문화재청에 국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관리, 종목 유파(類派)의 불인정,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한 분류체계, 현대적인 문화유산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없는 한계 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보호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 전반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선양할 수 없다.

전통을 창조의 도약대로 삼으려면,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한 ‘정신의 구조’와 터너가 중시한 ‘문화의 상징성’을 진정으로 이해, 파악해야 한다. 어떤 양식의 문화든,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신의 구조와 상징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그 문화를 토대로 한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창조를 시도했다고 해도, 온당한 창조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문화에 관한 폭넓은 해석력이다. 필자가 기어츠의 해석학을 언급한 것은 이런 취지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실제에서 작용하는 것은 화이트가 언급한 기술 및 기술체계의 계승과 첨단적인 활용 및 발전이다.

서양에서는 천재론(天才論)이 우세하다. 그들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화전승(tradition)과 문화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정의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이른바 천재라는 인물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문화유산의 상속자(相續者)들로서, 그의 성장 배경에는 과거부터 전문성을 이어온 가계, 스승, 친구, 예술가, 대학, 왕가, 전문단체, 후원자, 문화동반자로서의 애인, 관객, 교회 및 훌륭한 공연장 등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문화천재는 혼자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조의 방법, 기법, 기술, 체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천재적인 문화창조는 가능해진다.¹⁴⁾

IV. 창조 의 실제

2012년 10월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한국의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다. 예술성을 중시해 온 이 영화상에서 영예의 수상을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런데 <피에타>라는 개념이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제목 자체가 모방, 표절, 복사라는 인상을 쉽게 떠올린다. 상대적으로 서양의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어서 좀 덕을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떠오른다.

그러나 전통과 창조의 관계를 논의하려는 여기서 <피에타>는 담론의 적절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피에타(pietà)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자비, 구원을 뜻하는 말로서 기독교에 뿌리를 둔 개념이다. 추기경의 주문을 받고 젊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살된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이다. 1498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최초로 피에타가 만들어진 이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피에타류(類)의 작품이 만들어짐으로써 피에타는 조각분야의 전통문화가 된 것이다. 장르는 달리 하나 김기덕의 영화 <피에타>는 전통의 현대화에 해당한다.

김기덕의 <피에타>에는 예수가 아닌, 채권 추심 업자인 아들(이정진 역)과 그의 엄마를 자처하는 여인(조민수 역)이 등장한다. 일에는 매우 냉혹하고 무자비한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사랑과 구원을 갈구하는, 이중성을 지닌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돌볼 수 없었던 장애인 아들을 어쩔수 없이 살해하고나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죄악을 발견했다. 여인이 다시 또 하나의 아들을 찾게 된 동기에는 이런 사유가 잠재해 있었다. 좀 낡은 수법이지만 표현주의자 김기덕은 오락영화의 현실과 타협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법을 지킴으로써 일말의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영화 <피에타>를 성립시킨 전통의 잠재력은 바로 상징과 알레고리였다. 생존의 수단으로 정당화돼 가는 살인과 보복은 오늘날 한국과 세계가 상통하는 알레고리이며, 역설적으로 더욱 자비와 구원을 갈구하는 인류의 정신은 형식과 내용이 일체화된 피에타의 상징이다.¹⁴⁾ 이 영화는 한국인들에게 시대적 특수성을 과장과 충격으로 보여주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인간적인 연민과 용서의 보편성을 부각시킨다. 이런 창조성은 현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

14) 앤드루 로빈슨, 박종성 역, 천재의 탄생, 학교재, 2012 참조.

15) 佐佐木健一, 민주식 역, 미학사전, 동문선, 2002 pp.210-212 참조.

올려 명작들이 지닌, 전통의 새로운 현대화가 곧 창조적 가치의 여부에 달린 것임을 웅변해준다.

2012년 9월에 중영된 MBC 대하드라마 이환경 극본 <무신>(武神)은 오락 연속극으로 전락되고 있는 안방극장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고려의 무신집권은 일부 군벌들이 왕권을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남발해 온 반역사적 만행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서 당대의 무력하고 부패한 왕권에 대하여 군부가 정치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장기간 빈번하게 국토를 유린한 몽고의 세력에 대하여 강인한 정신과 우수한 전략으로 맞섰던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작품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도 인물성격의 창조에 있다. 군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도방합하 최우(정보석 역), 그 양아들 김준(김주혁 역), 김준의 친구 최양백(박상민 역), 임연 등의 개성이 돋보였다. 특히 김준은 고려의 노예 출신으로서 권력의 정점인 합하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드라마적 기적을 만들어냈다. 김준의 두 여인인 최우의 딸 송이(김규리 역)와 노예출신으로서 최우의 정부가 되었다가 다시 김준의 부인이 된 월아(홍아름 역)의 역할 역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호재로 응용되었다.

고려사를 고구려사의 계승으로 분명하게 부각시킨 극본과 더불어 김진민과 김홍동의 연출력은 괄목할 만했다. 평균 10.7%, 최고 13.2%의 시청률은 진정성이 있는 TV 드라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에 대한 충실한 고증, 훌륭한 의상과 장비, 스펙타클한 장면의 구성을 비롯해, 배역들의 절제 있고 숨쉴 있고 품격 있는 연기력은 작품의 매력을 살린 요인이다. 바로 이런 연기력이야말로 한국 드라마의 축적된 전통·연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에 공연된 국립무용단의 <도미부인>은 안무가 송범의 원작을 국수호 안무로 새롭게 공연한 것이다. 백제인 도미(都彌)는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 그 아내 도미부인은 미모와 절개가 뛰어나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개루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부인을 유혹하고자 거짓말을 했다. 왕은 도미와 ‘내기’를 해서 자신이 이겼으므로 부인은 자기의 수청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부인은 ‘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왕을 안심시켜 침실에 먼저 들게 하고는 다른 여인을 변장시켜 들게 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도미의 눈동자를 빼고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웠다. 왕은 다시 부인에게 수청을 강요했다. 부인은 월경중임을 구실로 다음날을 약속하고 그 길로 도주했다. 천우신조로 배를 타고 도주했고, 그리던 남편과 더불어

고구려에 가서 살았다. 이상이 도미전의 전부이다.

이 작품은 1984년 차범석 극본, 송범 안무, 박범훈 작곡으로 국립무용단에서 초연된 이후 몇 차례 재연되었다. 이번에 안무를 맡은 국수호는 1973년에 국립무용단에 입단해 송범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연부터 1992년까지 도미 역을 했으며, 1996년부터 99년까지 예술감독을 역임한, <도미부인>의 실질적인 창조자의 한 사람이다. 전통무용과 음악을 재료로 하여 송범에 의해 재창작된 <도미부인>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더욱 세련되고 격조 높은 무용극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제적인 구조와 조화도 그렇지만, 필자가 특히 감명을 받은 장면은 맹인이 되어 방랑하던 도미(이정윤, 조재혁 역)가 풍물패를 이끌고 떠돌던 아내(이윤정, 김미애 역)를 만나는 장면의 대무(對舞)이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던 도미는 멀리서 들리는 풍물소리를 듣고 잃었던 몸의 정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일행과 함께 맹인 가까이 다가온 아내는 그가 바로 도미임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과 생존의 환희를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한다. 도미는 이미 손에서 지팡이를 놓은 상태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부부의 사랑은 춤을 통해 더욱 빛난다. 두 사람은 춤의 혼을 마음껏 불태운다. 그리고 도미는 그 자리에서 절명한다. 순간, 도미부인의 춤과 선율과 남도창의 전통가락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2001년 12월에 초연된 백대웅 작곡의 <영원한 사랑 춘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이 공연한 새로운 음악극으로서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하나의 이정표를 수립했다. 전통음악을 재료로 한 음악극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탁월했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작곡을 전공한 백대웅이 서양음악을 탐구하다가 판소리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본격적으로 한국음악의 작곡에 뛰어들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술한 사람들이 춘향의 이야기를 가창곡으로 만들었지만 고전적 정취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킨 명곡을 찾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한문투의 가사가 그대로 남아 있던 박용구의 원본을 필자가 현실어 가사로 대폭 다듬어 대본을 만들었고, 김석만이 연출을 맡았다. 누구나 부르기 쉽고,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추구한 독창·이중창·합창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판소리 <춘향가>의 현대화이니만큼 판소리 장단과 선율이 중심을 이루고, 민요와 가사 등 모든 전통적 요소와 방법을 활용하여 방대한 관현악곡을 완성했다. 계면조 위주의 성음에서 우조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다. 이도령(남상일 역), 춘향(배성남, 서정민 역), 월매(김진희

역), 방자(허정승 역), 변학도(김승덕 역) 등 배역이 모두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힘찬 소리와 기백이 넘치는 연기를 보여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V. 전통문화의 운영

필자는 일찍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일층 보완하는 대책으로 무형문화유산법(遺産法)을 새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¹⁶⁾ 이를 거시적(巨視的)인 개혁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개혁에는 미시적인 개선의 내용도 물론 포함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괄하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존 무형문화재들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새로운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새 문화유산법에서는 문화유산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의 문화재법에서 '사람과 그 사람이 지닌 기술만을 문화재'로 규정하는 범주를 초월해, '현존하는 탁월한 문화적 가치'로서의 정신적·기술적 범주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2003년부터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제32차 총회의 결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2003년 10월 17일에 발표했다.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는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맞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발표했다.¹⁷⁾

지금까지 무형문화재의 보존에서는 원형에 대한 사승(師承) 관계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개념에서는 현재의 전승 상태, 현대에 성행하는 전통문화, 충실하게 복원될 수 있는 문화, 살아있는 문화를 모두 포용하고, 중시한다. 궁중문화라는 개념도 중시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보유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무(無)보유자 문화재 및 단체를 폭넓게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궁중문화, 김치, 막걸리, 아리랑, 풍물 같은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데도 문화재법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정되지 못한 것들이다.

유산 종목과 유파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종목은 원형개념에 준거(準據)하여 대별하고, 각 종목의 유파(流派)로서 분명한 종목들을 모두 독자형으로 지정한다. 장차 새로운 유파가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에 넣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은

16) 서연호, 새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공연과 리뷰, 2011 가을호, pp.18-29 참조.

17)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 2009 국제회의 보고서 참조.

1970년 4월에 발효되었다. 1974년에 유엔의 전문기구가 되었고, 한국은 1979년 3월에 전문기구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현재 WIPO 가입국은 184 개에 이른다.¹⁸⁾

유산의 종목에 중앙과 지역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 모든 종목은 유파만을 인정한다. 현 보호법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유산의 관리는 유산의 지역성을 존중하고 발전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초지역성을 지닌 종목과 유파는 중앙정부(문화재청 또는 위탁기구)가 관리를 맡는다.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해당 지역의 축제를 통해서 발생하고 발전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북오도청은 탈춤 종목의 유파들, 굿 종목의 유파들, 유파와 관련된 음악 유파들, 서도소리 유파들을 관리하도록 한다. 풍물(농악)은 국가지정 문화재들과 시도지정의 문화재들에 차이를 두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 각기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문화 진흥과 재창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존과 창조'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창작과 콘텐츠 개발의 성과에 대한, 온당한 사후지원(事後支援)을 위한 전문적 평가지원방법의 수립, 예산 실링제(Celling Budget)를 포함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당한 지원을 위해, 현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확충 또는 새 기금관리를 위한 전통문화진흥재단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문화'(한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¹⁹⁾

제18대 국회에서는 8건의 전통문화 관련 법안이 새로 발의되었고, 전통주산업 진흥과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를 제외한 법안들이 폐기되었다. 그중에는 전통문화 진흥과 재창조에 매우 중요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2009. 11.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2010. 11.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11. 10.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되었으나, 이들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실도 전통문화의 진흥과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한편, 전통문화산업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들은 전통건축, 전통의류, 전통공예, 전통식품에 한정되어 전통문화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18) 김관형·김기령, 지적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8 참고.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1 참조.

1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전통공연예술재단을 새롭게 개편 확충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전통문화산업의 조치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연초에 전통문화 관련 2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과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 전략」이 그것이다. 이 전략들은 일종의 행정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들을 살펴보면, 당면한 사업들과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에는 실천계획들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 사회 여건과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해 중점과제, 우선과제, 육성과제, 선양과제, 총괄과제, 개별지원과제 등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조해 두는 것으로 이 소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청소년 체험교육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된다.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에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인식을 북돋기 위해 학교의 예절교육 및 기예능특별활동 시간 설정, 박물관 견학, 공연장 관람, 축제 참가, 전국적인 전시 및 발표대회 참가, 고택·종택의 생활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철학에 대한 국가적인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누차 지적된 사실이지만, 현행대로 우리의 청소년 교육이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와 창의성은 더욱 낙후될 것이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²¹⁾

국내의 각종 축제, 각종 전통분야 발표경연대회,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분명한 정책목표와 지원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의한 엄격한 지원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행사와 관련된, 유력한 정치인들의 무리한 압력은 문화정책을 망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감사원 및 국회의 예산 결산심의에서 이러한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장관상의 남발은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은 상관성이 짙으면서도 문화의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도 있다. 문화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산업이니 상품이니 하는 용어를 붙이지 말자는 주장이다.²²⁾ 필자는 이러한 관념적 양

20)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콘소시엄, 2011, 12 참조.

국무총리실, 전통문화산업의 정책 분석, 정책분석평가실, 2012, 1 참조.

21) 오훈성,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참조.

22)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83 참조.

박이문, 세계화 시대의 문화와 관광, 경덕출판사, 2007 참조.

자택일의 주장보다는 '다양한 변화,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의 현장 및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산업의 올바른 역할과 상품의 우수한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러한 점에서 적지 않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올바른 역할과 우수한 상품을 내는 민간기업 및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그들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모든 제도적 혜택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장기저리 기금'을 쉽게 대출해 창작과 제품생산에 종자돈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역시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우수해진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문화'(한류)의 해외 선양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전통문화 및 전통공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기반과 전통기술이 우수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축제에는 소규모의 공연단을 파견하여 '예술 민간외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외국의 반(反)한류, 혐(嫌)한류의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상과 같은 해외 선양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제1 주제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

이원태 || 포럼 기획운영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

이 원 태

포럼 기획운영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본 발제문은 오늘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류 확산 현상과 함께, 전통문화의 세계화 및 한류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관련 정책을 다룬 글이다. 그리고 문화행정부처가 문화부로 독립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정책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 및 향후 전통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I.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수립

문화부가 독립한 이후, 전통문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은 1989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소장 이종인)가 수립하고 1990년 6월 25일에 발표(문화부장관 이어령)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시초로 잡을 수 있다.¹⁾ 이 계획에서는 1단계(1990-1991)의 주요 목표를 새로운 문화 정책 창출, 2단계(1992-1996)와 3단계(1997-2000)의 주요 목표를 문화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을 복지문화, 조화의 문화(화합),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라는 5개 문화 틀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담당기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소장 이종인)
- 경 과 : 1989년 10월 28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참 석 자 : 김경동(서울대 교수), 조홍윤(한양대 교수), 이태주(단국대 교수),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백승길(유네스코 문화부장), 김문환(서울대 교수), 임문영(계명대 교수), 박종국(문화산업연구원장)

1) 이 계획은 1993년 10월에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되었다.

- 주요 내용 : 세계적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전국 시·군마다 대표적인 민속축제를 개발하는 등 1990년대 10년 동안 추진할 문화발전 계획 수립

[표 1]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세부 내용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미국 줄리아드 음악학교와 같은 특수 예술학교 설립 ◦ 지방 주요도시에 국립극장과 전속 예술단을 신설 운영 ◦ 한산 모시촌 등 전국 7개소에 전통 민속 공예촌을 조성 ◦ 문화 창조자와 수용자 간의 매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화부 주관 하에 데이터 뱅크를 관장하는 다목적 전자서점을 개설 ◦ 기존 국어연구소와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재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려서 문화연구 기능을 강화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는 계획 추진을 위해서 2천년까지 10년간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며, 2천년대에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을 기존 0.35%에서 1% 수준으로 상향 설정

[표 2]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관련 목차

기본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2. 갈등구조를 푸는 조화의 문화의 틀 3.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4. 후기산업시대(Post Modern)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4. 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할 통일문화의 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황과 정책의 필요성 2.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한국문화 전파거점 개척 2) 한국문화의 아시아 권역화 주도 3) 문화외교 역량의 강화 4)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재단 설립
한겨레 문화의 조성 우리 문화의 세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의 필요성 2.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한 문화교류의 단계적 실천 2) 광복 50주년 계기 남북공동민속잔치 개최 3) 통일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조기 완성 4) 해외 '한국의 집' 운영 지원 5) 해외 한국문화사절 위촉제도 운영 6) 한국청년문화봉사단 파견 7) 동북아 문화정책 책임자회의 추진

	8) 한국 출판인쇄 1300년전 순회 전시 9) 한국 문학 번역상 신설 10) 우리문화 소개 자료 지원 확대 11) 해외 유명 예술 행사 참가 12) 한국 문화 종합 소개 행사 개최 13) 국제 예술 행사 창설 14) 북한 문화재 조사 15) 민속 문화재 국제 교류전 16) 국악을 세계 음악으로 17) 재외동포 생활사 실태 조사 18) 한국고전 및 전통 한지 제조과정 해외전시 19) 구소련과 연변지역의 한국어교사 초청과 국내학자 현지 파견
--	--

II. 1995년 「전통예술의 세계화 방안」 연구

「전통예술의 세계화 방안」(이원태·장장식·이송·이선철, 1995)은 「문화발전 10개년계획」과 1993년 10월에 이 계획을 수정한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전통예술 세계화를 다룬 주요 연구의 하나다. 한국문화정책개발(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예술 세계화의 개념

세계변화에 적응 ⇒ 세계경영 중심국가 구상

문화 부문에서 ‘세계화’(Segyehwa-Total Globalization Policy)라는 개념은 타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계화’의 개념과 ‘국제화’의 개념과 동의어 혹은 유사어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과, 이와는 달리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용례를 볼 수 있다.²⁾

2) ‘세계화’라는 말이 정책적 함의를 담아 확산된 계기는 1994년 11월 17일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APEC 참여를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 도중 시드니를 방문하여 수행기자단과 조찬에서 “각국을 순방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세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세

우리가 문화 부문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제화의 개념은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문화개방 및 문화발전 정책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세계화의 개념은 이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기조로서의 세계화 구상에 더 근접한 개념일 듯하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논한다면, 문화 부문에 있어서 국제화의 개념은 외부문화—인류 보편문화—의 수용이나 유입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반해, 문화부문 세계화의 개념은 자기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문화 확산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류 보편문화라는 것은 기실 문화전파 혹은 문화충돌 과정에서 절대적인 가치기준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문화가 기반문화를 변화시키며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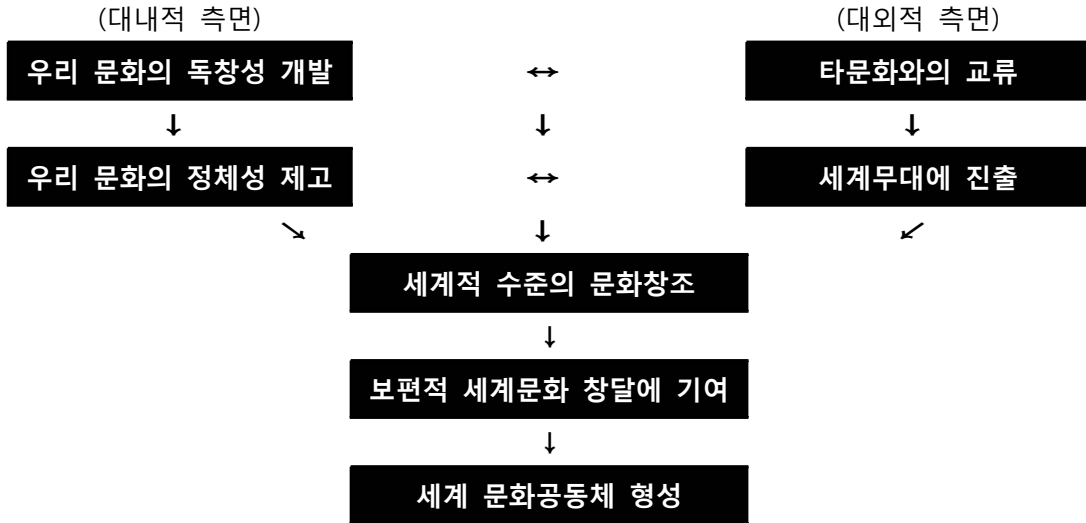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고유문화와 유입된 외래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개방시대의 문화전략은 자기문화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자기문화 우월주의나 무조건적인 외래문화 배척은 오히려 문화적 고립을 초래하여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의 진보와 발전은 스스로의 문화특성에 의한 역동적 발전가설도 성립할 수 있지만 폐쇄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질문화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의 자극을 받고 그 유입문화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양분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진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쇄적이거나 타문화에 대한 배척만으로는 자기문화의 진보,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 다만 문화발전 전략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더라도 타문화의 수용에는 투철한 주체의식과 현명한 취사선택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 부문 세계화 전략의 정책기조를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켜 볼 수 있다.

계화를 위하고 차세대를 위한 장기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곧 착수 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세계화의 방향으로 첫째, 세계경영 중심국가로의 발전, 둘째,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정책과 인력 개발, 셋째, 세계화를 겨냥한 제도와 인식의 개혁추진, 넷째,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사회건설, 다섯째, 물질적 번영 못지않은 정신과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건설을 제시(국정신문, 1994년 11월 24일자 및 28일자 참조)하면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1995년 「전통예술의 세계화 방안」의 세계화 전략 정책기조



2. 전통예술의 계승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계승은 정부와 공공 차원, 민·관 합동 차원,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차원의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열악한 문화인식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고 그마저 중앙집권적 통제 위주의 행정과 졸속한 사업추진으로 일관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간과한 결과, 오늘날 전통문화에 대한 도식화와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민관의 합동사업이 늘어났다. 관의 정책적 의지와 민의 자발적 의지가 결합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사업은 자칫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실효성 없는 일회성 행사치레로 끝나는 예가 많다. 민관 합동차원의 사업은 대부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관에서 보조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의 실질적 주도하에 과시형 사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결국 전통문화의 계승주체인 민간 대중의 무관심을 초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사업이 실효성 없는 졸속행정에 좌우되었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순수민간차원의 전통문화예술계승자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 민간 차원의 전통예술 계승자들에 대한 대책은 그들의 생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은 전통문화예술 관련사업의 취약한 수익성을 들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

은 사업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예술인들은 민간에서 전통문화예술 계승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종목개발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일반적 현황을 전통예술의 발굴과 계승 측면과 전통예술교육과 전수 활동 측면, 전통예술의 생활화, 대중화 측면, 전통예술의 산업화 측면, 전통예술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와 국제화 측면, 국제 교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아울러 전통예술 각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관광 및 국제 행사 부문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행사 중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에는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전통예술의 세계화 사례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세계화 사례에서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사물놀이’이다. ‘사물놀이’는 한국전통음악의 한 갈래인 농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4종류의 타악기를 사용하여 농악의 리듬을 유지하며 다양하게 변형시킨 연주형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다. 김덕수패 사물놀이로 알려져 있는 오늘날의 연주형태는 김덕수 등 남사당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일단의 젊은이들에 의해 공간사랑에서 창단연주를 가진 이래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전통음악의 현대적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음악집단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들이 팀을 구성하면서 자의적으로 붙인 명칭인 ‘사물놀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국내에서는 연주의 한 장르나 형태를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다시피하였고 세계무대에서는 사물노리안(Samulnorian)이라는 세계통용어가 생겨난 실정이다.

북한의 전통악기 개량은 우리 전통예술의 세계화에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북한에서 이미 1956년부터 시작한 민족악기 개량사업은 1964년 11월 7일 문학예술부문일꾼회의에서 ‘혁명과 사회발전에 따른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민족정서를 반영하는 주체적 민족음악을 건설하라(김일성 어록)’는 교시에 따라 5음계 위주로 연주되는 국악기의 제한성을 극복하자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반면에 양악기는 그 울림이 개방적이고 긴장된 느낌을 주는 등 음색이 원색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면서 복합음색으로 새로운 표현기능을 가지는 개량 국악기를 만들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그 개량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개량된 민족악기들은 서양악기와 협연이 가능하도록 평균율로 모두 바꾸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북한만 시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민족악기를 평균율화하였다. 또 악기를 개량하면서 얻은 것은 음역이 확대되고, 음량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색면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에서 요구되는 소위 성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단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예술계승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경제력 제고방안으로서의 세계화 추진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통축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속의 계승전략을 들 수 있는데, 마쓰리를 통하여 현지인에 의한 현지 계승전략이다. 일본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외국에 수출한다. 전 국토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동양의 문화배경과 영국이라는 서구적 정치체제를 가진 특이한 조건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축제는 자신들의 국제도시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며, 홍콩 시정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주도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재정부족액의 대부분을 시정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외래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전체적인 수지를 고려해 보면 홍콩 자체의 수지손액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4. 전통예술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전통 예술세계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방어적 문화전략에서 공격적 문화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는 전통예술의 표준화와 정보화를 모색하고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문화창조력을 제고하며 전통예술의 상품화를 통한 문화경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전통예술의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예술의 진흥기반 조성과 기획역량을 육성해야 하며,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전략종목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국내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아시아 전통예술제(Asian Arts Festival)'를 창설

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매년 문화의 달인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하고, 축제 개최기간에 맞추어 서울 시민 전체가 한복입기, 거리와 집집마다 청사초롱(전구)을 매다는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간 중 단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추진과 함께 자치구별로 주요행사를 대기업과 행사개최권을 분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전통예술 테마파크(Thema Park)’ 조성사업, ‘세계 각국 민족전통예술 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통예술 창작 활성화 시범추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 음악을 이용한 창극(오페라) 개발 안’과 ‘판소리 ‘춘향가’를 주제로 한 창작 시범사업안’ 등을 제안하였다.

Ⅲ. 2007년 「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수립

‘한(韓)스타일 육성사업’은 최근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전통문화 정책사업으로, 2007년 2월 15일 발표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에 근거한다. 이 계획은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의 6대 분야를 선정하여 통합적 상위개념으로 ‘한스타일’이라는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본래 이 사업은 2005년 6월에 ‘한브랜드화’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한브랜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표 3] 사업 추진 초기 ‘한브랜드’에서 ‘한스타일’로의 변화 과정

시기	내용
'05. 6.	◦ 한브랜드화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12회, '05. 6~12)
'06. 5	◦ 제5차 국가이미지위원회에 한브랜드 지원전략 보고 - 6대 분야 중 한국학 제외, 한국음악으로 대체
'06. 7.	◦ 한브랜드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총괄기획/한글/한복·한지/한식/한옥 분과 구성 - 분과위원회 주기적 개최('06년 7회 개최)
'06. 9. 28~10. 1.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일산 킨텍스) 및 상징물(CI) 개발

‘한스타일’ 사업은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우리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문화정체성 정립 필요
 - 전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경시풍조 만연
 - 단순한 보존대상에서 창조적 계승 대상으로 가치 재인식, 자긍심 고취
-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위주인 한류의 새로운 동력 마련
 - 한국인의 감성이 담긴 전통문화 콘텐츠의 집중 육성
- 한국의 문화이미지 제고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향상
 - 국가별 브랜드가치('06, 산업정책연구원)는 미국 7조 2천억 달러(1위), 일본 2조7천억 달러(5위), 중국 1조2천억 달러(8위), 한국 8,659억 달러(10위)
- 전통문화의 산업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 관광객 유치, 한식당 해외진출 등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2) 정의 및 핵심가치

- 정의 : ‘한스타일’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
- 핵심가치 : 자연, 건강, 품위, 과학
 - 한국 전통문화 각 분야의 정수에 담겨있는 공통의 가치

3) 6대 핵심분야(6H)

-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선정기준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도 자생력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일상성 :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 분야
- 상징성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분야
- 산업화 가능성 : 세계무대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품가치를 지닌 분야
- 정책화 필요성 : 미지원 분야로 시장기능에 의존이 어려운 분야

[그림 2] '한스타일' 개념도



[그림 3] '한스타일' 비전 및 추진 전략



2. 분야별 추진 과제

구 분	40 핵심 과제
한스타일 기반구축 사업	1. 한스타일 제도적 기반, 추진체계 확립 2. 한스타일 홍보 및 인식제고 3. 한스타일 문화행사 개최 4. 전통문화 기초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5. 전통문화의 과학성 연구 및 홍보
한 글	6. 해외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지원 7. 국내외 한글 전문가 양성 및 초청교육 8. 해외실정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자료 개발보급 9. 이주민 대상 한글교육 10. 한글 디자인상품 공모 및 개발사업 11. 한글 전자학습 체계 구축
한 식	12. 한식조리법 표준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 13. 해외 한식당 인증제 및 경쟁력 제고 사업 14. 한식 해외조리사 및 경영주 교육훈련 사업 15. 국내 방문 외국인 한식체험지원 사업 16. 한식·식문화 홍보 및 저변확대사업 17. 재외공관 한식조리사 파견 프로그램 지원
한 복	18. 한복 생활화 사업 19. 한복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 및 공모사업 20. 한복 진흥 산학연계 체제 구축 21. 전통이미지를 접목한 패션제품 개발 22. 재외공관 한복교체 지원사업 23. 세계 4대 패션쇼 참가 및 한복 해외진출 지원 확대
한옥 (한국적 주거문화)	24. 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25.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26. 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27.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28.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한 지	29.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30. 한지 장인 후계자 양성 31. 한지 공공소비 활성화 지원 32. 한지 상품 국제 교류 지원 33. 한지 문화상품 및 기능성 한지 개발 34. 한지 산업의 현대화 지원
한국음악	35.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36. 창작 대중국악 및 생활 음악곡 개발 지원 37.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38. 전통예술 디지털 종합정보센터(아카이브) 구축 39. 궁중연례악 및 전통연희의 관광 자원화 40. 전통예술 소재 문화상품 개발

3. 주요 사업 추진 경과

「한스타일 종합 육성계획」 수립 이후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2008년에는 국내외 홍보행사에 주력하여 국내에서는 한스타일 박람회(2008. 8), 한복사랑 페스티벌(2008. 10)을 개최하였고 해외에서는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에서 한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한스타일 해외 홍보를 위하여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에서 한스타일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한글, 한식, 한복 등의 위상 제고 및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음식 체험, 한복 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한국 문화 선호층을 형성하였다.

2010년에는 한스타일 온라인 국외홍보 강화를 위한 민족문화구축사업(제4차)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홍보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2010. 10), 한국스타일 박람회(2010, 12)를 개최하였고, 한지와 한복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e-디렉토리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스타일 주요 분야별 핵심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한복의 경우 한복 관심도 제고 및 한복 산업화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축제(2010. 10.15-16, 창경궁)를 개최하였다. 한식의 경우는 해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를 위하여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국가별로 현지화 된 대표 메뉴 20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 홍콩과 베트남, 2009년 미국의 뉴욕과 LA지역에 개발한 메뉴 보급을 추진하였다.

4.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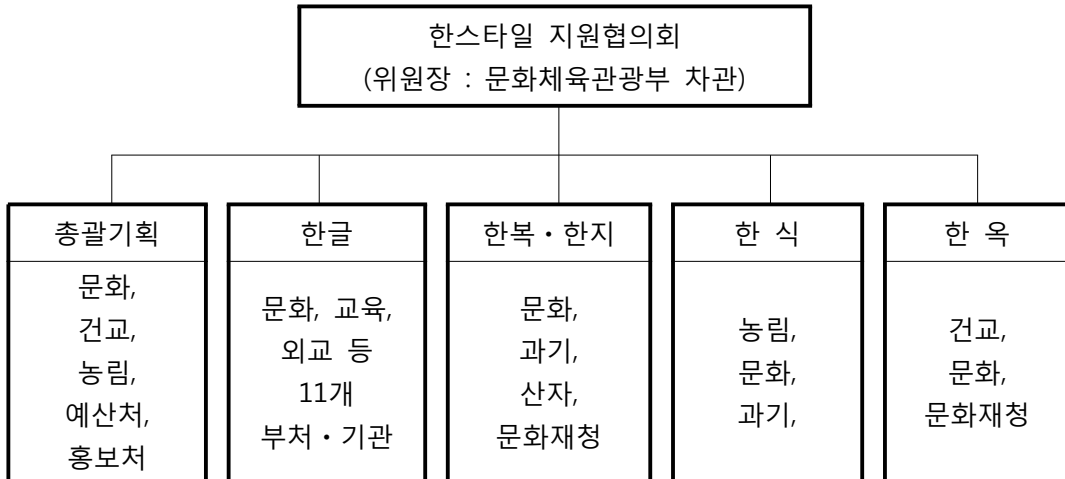
정부는 위와 같은 추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부처적인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스타일 지원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의 '한스타일 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계획하였다.

□ 한스타일 지원협의회 개요

- 구성 : 한스타일 6대 분야 관계부처 참여, 5개 분과위 설치
 - 총괄평가, 한복·한지, 한식, 한옥, 한글분과

- 위원장/위원 : 문화부 차관/관계부처 담당 국장
- 주요 기능 : 한스타일 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 논의 등
- 회의운영 : 전체회의(반기 1회), 분과위원회(분기 1회)
- 운영방향 : (단기)정부주도 지원협의회→(장기)민간주도 한스타일추진본부

[그림 4] 한스타일 지원협의회 체계



IV. 2012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수립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월),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2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4월) 등 한국문화(K-Culture)를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3대 전략 중 전통문화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1. 수립배경

- 전통문화는 콘텐츠,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자원의 보고이다. K-Drama 또는 K-pop과 같은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문화, 현대문화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한류 콘텐츠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신한류 K-Culture 시대에 전통문화의 육성을 통하여 '국격'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한류 3.0시대(K-Drama→K-Pop→K-Culture)를 열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통문화의 진흥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국가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다.

2. 전통문화 현황

1)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2011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결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고루하고 진부하다'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관심도도 낮지만, '한국의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향후 발전가능성 크다'는 의견이 전통식품(76.4%), 전통건축(67.8%), 전통공예(66.0%), 전통의류(50.2%)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문화동반자사업에 참가한 외국 문화예술인 44%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문화로 고궁 등 전통문화 선택했다.(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22%, 공연문화 7%, 2011) '미술랭 가이드 한국판'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23곳은 대부분 경복궁, 북촌, 경주 양동마을과 같은 전통문화유산을 꼽고 있다.

2) 전통문화 활용기반 및 산업간 융화 현황

현재 전통문화는 문화원형, 전통문양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DB 구축을 하고,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분야의 전통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0년 약 25조원에서 연 5.9% 성장' 하여 15년에는 33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류, 식품, 건축 등은 전체시장에서 전통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이나 참살이, 웰빙 등 육구증대로 비중 확대 예상이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여가시간 증대로 전통문화자원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전통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1)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 미흡

문화부 주도로(농림부, 국토부 등 공동)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07~'11)

을 수립하여 전통문화 진흥을 추진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 및 총괄·조정 등의 한계로 단발적·행사성·분야간 분절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실효성 미흡하다. 특히 전통문화진흥은 소프트파워시대를 견인할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나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

2) 낮은 인지도와 중요성 인식 부족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홀대현상이 팽배하다.

3) 전통문화자원 활용 부진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부족과 국적불명의 현대화된 디자인 위주로 일본의 료칸, 스시가게와 같이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통한 문화마케팅 한계가 나타난다. 또, 문화원형 디지털화 및 DB화에 치중하여 콘텐츠 활용도 제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4) 우리문화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부재

한국 전통문화를 주제로 세계가 공감하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해외에 한국을 홍보할 공간·매체·인력과 민간의 관심이 미흡하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전통문화의 산업화 기반 열악

2011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문화 부문은 산업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판매 결합형태가 많으며, 산업의 양극화·영세성이 중첩(대형업체-소형업체 극단적 분포) 되어 있다. 개인사업체 비율을 예로 들면, 전통의류산업(75.8%), 전통공예산업(88.8%), 전통식품산업(86.2%) 등 사업체 대부분이 10명 남짓의 소규모 개인사업체(75.8%)로 영세하여 자본금 확보, 마케팅,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목표 및 추진전략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에서는 '전통문화를 통한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전통문화 부분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현재 35위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단기 10대 및 중장기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2012년에 3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림 5]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개념도



5. 주요 실천계획

1) 전통문화 대중화

- 공공기간 전통디자인 적용 : 정부·지자체 신축 건물, 해외공관, 지방이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한국적 문양·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전통문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전통디자인 인테리어 활용 : 호텔, 공항 등 외국인 접전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디자인 명품모델을 개발하고 유명 사진작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사진콘텐츠로 제작하여 민간에 확산

-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얼, 한국의 멋, 한국의 맛, 한국의 흥, 한국의 정, 한국의 인물 등 6개 분야에 한국문화의 유전자(보편적 특성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콘텐츠 및 관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10대 전통문화촌 지정 : 행복청과 협의하여 세종시 '한문화 마을'을 전시·체험·숙박·교육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한 한국형 모델시대로 조성. 10대 대표 전통문화마을을 선정하여, 관광·역사·체험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주 5일 시대에 맞는 체류형 문화관광의 모델 확립
- 전통문화교육 확대 : 문화원, 박물관 등 토요일문화학교 100개소에서의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고, 문화 바우처 기획사업 및 문화나눔사업의 20% 이상을 국악분야에 배정하고, 대학 및 실업계 고교에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융·복합 특성화 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운영비,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고 콘진원 및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에 전통문화 체험·실습 교육과정 추가 개설
- 명품축제공연 브랜드 개발 : 일본의 기온마츠리와 같이 외국인이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예 : 연등회 등)를 발굴하여 육성
- 외국인 선호 명품공연 작품엄선 :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꼭 봐야만 하는 대표 명품공연을 발굴(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화선 김홍도, 신국의 땅, 신라 등)하고 전용공연장에서 연중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외계층 전통문화 향유 환경조성

2) 전통문화 현대화

- 디지털 전통문화서비스 개발 : 역사학 등 인문학자와 방송국 피디, 작가와의 공동 스토리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국악인과 예능·드라마 피디의 협업 채널 주선을 통한 전통문화 자원의 콘텐츠 개발 촉진의 장을 마련하고, 중요 문화유산의 3D·홀로그램 제작·보급, 국악기 디지털화 및 종묘제례 재현 로봇공연 등 CT·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문화 콘텐츠 개발
- 스마트 전통문화서비스 : 기술력을 가진 전통문화 장인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이너·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전통 문양·디자인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션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제작 발전시키고, 디자인 상품 등 전통문화 접목 분야별 공모전을 통한 산업적 활용 유도

3) 전통문화 세계화

- 전략적 교류활성화 5대 지원원칙
 - ① 해외 거점 중심 지원
 - ② 문화행사는 현지 기관과 연계
 - ③ 공연·전시+세미나+간담회(학계, 업계, 언론계)를 통한 비즈매칭 모델 확립
 - ④ 현지 문화적 코드반영으로 현지화
 - ⑤ 한국의 고유문화 접목으로 정체성 확보
- 쌍방향교류 활성화 : 해외 작은도서관에 도서·영상물 등 한국문화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원조(ODA) 사업에 한국적 미, 콘텐츠를 가미하는 방안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민간교류 및 글로벌 시장 개척, 대기업과 동반진출 : 국악 퓨전음악 등을 대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해외 매장에서 활용하고, IT 국제전시 박람회 시 문화유산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대기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
- 전통문화 인재양성 : 문화예술을 전공한 100명의 정예 인력을 선발, 집중 연수과정을 거쳐 해외 문화원에 문화통신사로 인턴을 배치하여 현지화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4) 전통문화 진흥기반 조성

- 제작 및 유통 인프라 확충 : 전통문화창조센터, 한복진흥센터 등을 구축하고, 한지와 공예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전통문화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생활공예품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센터와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
-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융합 기술개발 및 투자 시 법인세 등 감면 추진하는 한편, 국회와 민간 등과의 협력 채널과 범정부지원협의체를 구축
- 전담조직 확충 : 전통문화 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전통문화 산업 소기업의 인큐베이팅, 마케팅, 교육, 투자유치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및 전담법인 신설

V. 2012년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 수립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과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에도 전통문화 및 한류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문화예술(K-Arts)을 통한 한류의 명품화'를 부제로 하는 만큼, 한류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한류는 드라마 중심의 1.0시대와 K-pop 확산을 중심으로 한 2.0시대를 거쳐, 한국문화 전반으로 파급하기 위한 3.0시대를 맞고 있는데, 한류 3.0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류의 기준

한류 1.0('95~'05)	⇒	한류 2.0('06~'11)	⇒	한류 3.0('12~)
드라마, 영화, 소량의 음악 (영상콘텐츠 중심)		다량의 K-pop, 드라마, 영화 (아이돌스타 중심)		한국문화 전반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아시아, 북남미, 일부 유럽		전 세계

* 콘텐츠 중심으로 분류

□ 한류 3.0 개념 및 범위

- 개념 : 한국인,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적 창작물(보편성+독창성)
 - 형태 : 작품, 공연, 이벤트, 상품, 인물 등
 - 분류 : 전통문화, 순수예술(스포츠 포함), 문화산업(관광 포함)
- 추진 방향
 - 각 분야의 독창성과 상호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글로벌화
 - 쌍방향 상호 교류와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발전의 뒷받침
 - 민간의 역량 강화 지원, 타 부처의 한류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재생산

[표 4] 한류의 의미와 범위

분류	의미	범위
전통 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의 육성 ◦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 첨단기술의 융합 (전통문화의 발전과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양·디자인·공간, 한지, 한복, 고택, 전통문화교육, 국악, 전통문화마을, 전통문화축제, 한글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
현대 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예술의 창작역량 강화 ◦ 순수예술의 저변 및 교류 확대 (순수예술의 독창성과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공연(제작노하우, 기술)·전통 예술, 건축, 디자인, 문학, 출판, 공예, 민속축제, 아시아문화, 스포츠 등
한류의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콘텐츠의 지속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산업, 캐릭터, 콘텐츠기술, 패션, 방송영상, 문화상품, 관광 등

* 의료, 한식, 문화재 등 타 부처의 한류는 관련 분야에서 연계 추진

1. 비전과 목표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에서는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문화예술(K-Arts)’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 개념도



2. 10대 추진 전략

1) 세계인이 관람하는 k-musical

□ 현황

- 국내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나 국내외적으로 창작뮤지컬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음
 - 창작 뮤지컬에 대한 투자부족과 낮은 관객 선호

□ 추진전략

국내 재공연 및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창작 뮤지컬에 국내 재공연 지원 ○ 우수 창작 뮤지컬에 해외진출 지원
한국 뮤지컬 아카데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창작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자/재교육 과정으로 분리 운영 ○ 뮤지컬 현장 밀착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및 배우를 강사로 채용
뮤지컬 투자 펀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반 조성 ○ 문화예술전문 모태펀드 신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금 확대

2) 한민족의 國歌, 아리랑

□ 현황

- 한민족 대표상징 아리랑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

□ 추진전략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CI 개발 및 활용- '항상 보이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자주 불리는 아리랑'으로 이미지 강화
페스티벌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지방까지 아리랑 릴레이 공연투어 - 주요 언론사와 대중이 참여하는 아리랑 캠페인 병행 - 해외주요도시에서 아리랑 페스티벌 - 아리랑 국제학술회의 개최
유네스코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의 무형유산 등재 추진- '정선아리랑'을 전체 '아리랑'으로 확대하여 등재추진

3)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한류콘텐츠 기획인력 양성

□ 현황

- 전통예술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한류콘텐츠 제작을 위해 체계적인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추진전략

K-Arts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통예술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기획자 관련 협회 등 참여 ◦ 입문형 교육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술분야 명사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스토리텔링 및 소재 개발 관련 성공사례 특강 병행 ◦ 멘토링 워크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통예술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 - 소수의 교육인원으로 주제별 집중탐구 진행
----------------	---

* 'K-Arts 아카데미'는 '한류아카데미'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 중

4) 세계적 예술가 배출을 위한 창의교육

□ 현황

-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체계적인 조기교육으로는 역부족
 - 국내발레의 경우, 세계적 무용수 배출에 한계
-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 추진전략

한국예술영재학교 설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분야는 순수예술로 한정 - 적정학제 및 교과과정 검토
발레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 기초 꿈나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발레단의 기법전수로 기초 발레 교육 기회 확대 - 전문 발레 무용수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 은퇴 무용수를 전문 강사로 초빙

5)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교류 전문가 육성

□ 현황

- 국제 문화예술교류 전문기획자 및 에이전트 정규교육 부재
- 국내 기획자, 큐레이터의 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 추진전략

미술 기획자·큐레이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기획인력 중장기 육성 방안 수립 ◦ 세계 미술 주요 거점지역에 큐레이터 대상, 해외 레지던시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세계적 기획자·큐레이터를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현장 방문 및 교류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전문 에이전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활동 및 해외 투어 사업 지원 ◦ 에이전트 대상, 국제교류 아카데미 운영

6) 스마트문화예술 (Smart Arts) 창조

□ 현황

- 문화예술과 산업·기술 융합으로 기술이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산업제품의 명품화와 인간중심적 기술개발을 추구함과 동시에 한국문화 예술을 동반 해외 진출시키는 효과 기대

□ 추진전략

문화예술·산업·기술 융합을 위한 MOU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시장개척, 예술의 첨단화와 산업제품의 고품질화 지향 ◦ 부대행사로 전문가 컨퍼런스 및 융합상품 전시회 개최
문화예술 작품의 첨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미디어아트 저작물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및 작품 육성 ◦ 국악기 글로벌 첨단앱 및 작·편곡 저작물 개발 ◦ 전통소목장 결구법을 디지털화하여 현대상품 개발에 활용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과의 쌍방향 소통형 전시 구현 - 공공공간에 열린 전시장을 조성하여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문화예술이 융합된 산업제품·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산업인력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공간 마련 및 활동지원 - 사전·사후 협업 역량 강화 지원 ◦ 감성 연구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대학·연구소,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 작업·전시 및 활동공간 마련 ◦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창의력 향상 지원금 사용 범위를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로 확대

7) 세계 곳곳에 문화예술 가교 조성

□ 현황

-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 재외문화원, 세종학당, 해외박물관 한국실의 협력 강화와 함께 통합적 국가이미지 전략마련 필요

□ 정책방향

재외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 및 해외박물관 한국실이 총괄 지원 거점의 역할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문화원을 증설하여 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 현지 예술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예술단체와 연결하는 매개기능 수행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국제공예박람회 참가작품 연계전시 - 국제 예술 협력관 시범 파견
세종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법인인 '세종학당재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보급 등 한국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 ◦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및 문화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원을 해외에 시범파견하고 한국어 학습시스템을 개발 - 우수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해외박물관 한국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간 TF 구성 운영 ◦ 해외박물관 한국실 종합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실의 시설 개선 및 전시 활성화 ◦ 인력교류를 통한 전시 전문성 제고

8) 아시아 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 현황

- 장기적 관점에서 한류 지속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쌍방향 교류를 지향
- 문화다양성 증진 협력사업의 확대 필요

□ 정책방향

세계적 문화흐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공통 테마를 콘텐츠화 ◦ 아시아적 가치 기반의 글로벌 브랜드 축제
동반자적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문화자원 공동 조사·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조형·상징, 의례·공연, 의식주, 이주· 정착 분야 ◦ 유무선 서비스 플랫폼인 아시아문화포털 개통 ◦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공모전 개최 및 당선작 콘텐츠 제작 지원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 대상 공동창작·협업 프로그램 운영 ◦ 국가 순회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동반성장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 현황

- 아시아 지역의 쌍방향 문화교류 강화를 위한 구심점 마련 필요

□ 정책방향

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 아시아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급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장관급회의 개최
수평적 상호 문화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예술가와 공동으로 아시아전통실내악단,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아시아무용단 구성 및 창작·제작 작품 공연
아시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이 어려운 아시아 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시 및 전시공간 제공
한·중·일의 문화예술 교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문화예술창조도시 선정 ◦ 순수예술 중심의 한·중·일 예술 축제 순회 개최

10) 문화예술 나눔으로 발전하는 공적개발원조(ODA)강화

□ 현황

- 문화적 리더십 구축과 저개발국(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대한 문화예술 ODA사업 확대 필요
- 상호 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모델 개발 필요

□ 정책방향

문화와 발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문화권과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협력모델발굴 ○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유치 시도
무상원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우수예술인재 유치양성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역 우수 예술인재 수혜국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로 확대 - 아시아우수예술 인재 장학생의 재능기부 추진 ○ 개도국에 전통공예 콘텐츠의 디자인 개발 및 유통구조 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화 가능한 공예상품 육성 정책 컨설팅 - 공예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실시 및 유통구조 개척 ○ 개도국의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 유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인력 교육 실시
다자원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창조산업 발전사업 지원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 주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개선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관련 문화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신설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의 최빈 개도국의 관광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국제경기대회유치 및 개최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기대회 지식정보센터 구축·활용 ○ 정보 분석통한 성공개최 모델 정립 및 세부프로그램 구성 ○ 노하우 공유 및 해당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 사업추진체계로서 관계기관과의 TF 구성·운영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중심에서 전문 인력 양성 중심으로 프로그램 다변화 ○ 전문적·체계적 동계스포츠 인적 인프라 구축

3. 분야별 추진과제

1) 문학(K-Literature)

□ 현황

- 해외출판계의 관심 지속유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 시급
- 한국문학을 세계와 공유하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 미비
- 수출 실무에 대한 자체역량 및 체계적 마케팅 부재
- 해외 수요자 중심 번역을 위한 원어민 번역가 부족
- 한국문학의 지속적 홍보 및 담론형성 부족

□ 정책방향

한국 대표작가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작가 15명 선정 및 해외 에이전시와 직접 연계망 구축 - 작가가 직접 현지전문가 및 독자와 교류 ◦ 권역별 한국문학번역원 포럼 개최 ◦ 세계작가축제 및 베이징도서전 주빈국 문학행사 참가
현지 유통망 확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요 에이전시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유통망 확보 - 교류행사 시 주요 에이전시를 초청,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문학 이해도 제고
영어권 한국문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달키 아카이브출판사(Dalkey Archive Press)와 한국문학 총서 25종 발간 ◦ 미국지역 한국문학포럼 및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용
전문번역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아카데미 및 번역아틀리에 운영 개선 및 확대 - 번역아카데미 커리큘럼 보완으로 번역작품 현지 수용성 제고
전방위적 해외 홍보·마케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소비자 겨냥 수요 창출과 마케팅 실시 - 해외 문예지에 한국문학 평론 및 특별호 게재 - 해외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실시 ◦ 해외주요외빈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번역도서 나눔 확대 ◦ 해외 맞춤형 홍보 및 홍보채널 다양화 - 뉴미디어(유튜브, 팟캐스트 등)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

2) 미술(K-Arts)

□ 현황

- 세계적 작가의 부재와 국제적 역량을 갖춘 큐레이터의 부족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미술의 인지도 낮음

□ 정책방향

순회전시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주요 국가 미술관 대상 순회 전시회 개최지원 ◦ 권역별 현대미술 핵심주요도시 대상 순회전시회 개최지원
해외진출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중견작가 프로모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참가지원 - 세계 유수 미술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 한국 현대미술 해외소개 프로젝트 활성화 유도
세계적 작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요행사와 연계 한국미술 소개 프로그램 활성화 ◦ 국제적 수준의 기획자와 네트워킹 추진
시각예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계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사업 추진 ◦ 한국작가기획자의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IT기반 온라인 홍보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홍보를 위한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아트프로젝트2와 연계하여 홍보추진 ◦ 한국 현대미술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책자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책자 「100.art.kr」발간 및 웹 활용 e-book 보급 -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간행물 발간 및 시리즈화
실험적인 미술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연계하여 아트 플래쉬 행사 개최지원 ◦ 국립서울미술관 프리오픈행사를 실험적인 무대로 활용

3) 공연예술(K-performing Arts)

□ 현황

- 권역별 체계적·객관적 종합정보 제공 및 전략 지도 부재
- 국내 공연예술단체와 해외 공연기획자간 체계적인 해외교류 시스템 구축 미흡

□ 정책방향

권역별 공연예술 해외교류 전략지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로 종합정보와 교류전략 등을 포함한 전략지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업데이트 - 공연예술단체 해외교류를 위해 무료 컨설팅 실시
해외교류 성공사례 발굴·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류 우수사례를 발굴, 온라인 포털 게재 등으로 성공 사례 확산
국제공동제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을 겨냥한 공연작품 창작과 공동제작국가 진출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MOU체결 확대 - 국제협력 우수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협력 사업 지원

대표 공연예술 유통마켓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트마켓의 아시아 대표 마켓으로의 입지 확립 및 집중 교류권역 확대 - 아시아 지역 공연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운영 - 서울아트마켓 선정작 해외교류시 사후 지원강화
-----------------	---

4) 전통예술(K-Traditional Arts)

□ 현황

- 한류에 앞서 전통예술의 국내 저변 확대를 위해 관객과 즐길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 정책방향

국민 참여를 통한 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국악 판 프로젝트 개최 - 젊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야외 페스티벌 - 중고등학생 음악캠프와 병행하여 젊은 국악인의 참여 유도 ◦ 전통예술 아카데미 운영 - 전통예술 연출 및 무대기술의 전문 인력 집중양성
해외전문가의 방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뮤직 전문가 대상의 K-Arts 현장방문 투어 운영 - 예술현장 방문 및 한국의 자연, 설화, 전통음악 등 강좌

5) 클래식음악 (K-Classic)

□ 현황

- 전통예술을 서양의 고전예술로 재해석하여 해외 현지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공동제작 활성화 필요

□ 정책방향

한국적 클래식 개발	◦ 한국적 소재와 보편적 클래식 예술을 접목한 작품 발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기획단계에서 무대, 연출 등의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멘토링 실시
국립예술단체의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오페라단 - 주요 계기 행사 및 페스티벌 참가 - 해외 공연 시 우리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 권역별 주요 극장·오페라단과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국제 예술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가 직접 설계한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 K-Classic투어지원을 통한 해외무대 진출 확대 ◦ 국제 음악페스티벌에 한국특집을 유치

6) 공예 (K-Crafts)

□ 현황

- 공예소재 및 기술 관련 체계적인 연구와 정보화 시스템 미흡
- 공예 창작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부족
- 국내 판매 유통망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
- 해외교류·진출을 위한 지원 예산의 부족

□ 정책방향

소재·기법의 정보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창작활동 및 신소재·기술 연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공예의 제작과정·기술 및 활용가치를 연구한 '리소스 북' 발간 - 전통공예 소재별 종합 연구 정보를 담은 '소재 정보집 (Material Kit)' 개발보급 - 전통소재 성분 분석·표준화·다양화 관련 기술 R&D 통해 소재 대량 생산 및 응용 소재 개발 촉진
창작·산업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 및 예비 작가·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디자인 리더 양성 교육'을 통한 상품 개발·경영 전략·마케팅 능력 강화 - '한국공예디자인 진흥원 아카데미'를 통해 기술력이 바탕이 된 차세대 공예인 양성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공예체험·문화 교육
국내 전시·유통 체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스템 연계를 통한 한국공예 유통 효율화 및 내수 확대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인과 신인작가가 연계하여 공동 상품개발 - 우수공예품 인증제 실시를 통한 품질관리 - 온·오프라인 유통 시스템 연계로 공예작품 판로 확대 - 해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결제시스템 확충
국제교류·해외진출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공예국가 협회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작가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국제공동 창작 체계 조성 ◦ 국내외로 개최된 국제 박람회를 전략적으로 참가 및 활용

VI. 전통문화 및 한류 관련 사업 추진 계획(2012~2013)

정부는 전통문화와 한류의 진흥을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총 44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하여 2012년 3,610억 원, 2013년 4,6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중 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통한류 분야에 2012년 515억 원, 2013년 1,0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글과 태권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각종 전통예술 및 한국문화 교류를 위한 사업들에도 전통문화 분야가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표 5]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2012~2013)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12년 예산	'13 중기계획	
			요구(A)	조정(B)
소계 (12개)		51,500	100,389	108,389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	한국적 생활문화 저변확대(한복진흥, 전통문화촌 지정 등), 전통문화 산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등	-	14,800	14,800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한류콘텐츠 제작에 있어 기반이 되는 한국문화 DNA 발굴 등 문화원형 발굴	3,414	3,339	3,339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전통예술의 대중화(민속예술축제 등), 산업화(전통예술 산업콘텐츠 개발 등), 세계화(아리랑 세계화 등)	2,390	2,483	2,483
국악원 공연활동	국악 해외공연 지원, 관객별 눈높이 맞추기 기획공연, 대표브랜드공연 등	2,083	2,500	2,500
국악진흥	국악의 세계화, 생활국악 개발·보급, 국악경연대회, 국악아카이브 운영, 국악박물관 운영, 국악자료실 운영 등	1,620	1,850	1,850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 국제저널 무형유산발간, 문화동반자사업, 문화교류협정체결, 외국인 전통연희프로그램 등	594	717	717
전통한류확산을 위한 두레여행촌 조성	지역의 고유문화와 연계한 체류형 숙박체험시설 조성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휴양촌 비즈니스 모델 구축 컨설팅 등	-	5,000	5,00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12년 예산	'13 중기계획	
			요구(A)	조정(B)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 운영지원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육성(시설개 보수, 고택종택 명품화, 체험프로그램 등)	8,150	12,700	12,700
전통문화체험지원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템플스테이 전 용 및 특화시설 지원, 서원·향교의 전통유교문화 관광상품화 지원	22,641	35,000	35,000
한국관광 으뜸명소 육성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 명소를 전략적으로 선택, 소프트웨어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등 지원	-	5,000	5,000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고궁 역사문화 관람콘텐츠확충, 전통 문화 재현 및 체험, 상설국악공연 해 외홍보·마케팅·문화유산탐방 등	8,608	15,000	15,000
한스타일 육성지원	한스타일 6대 분야(한글, 한식, 한옥, 한지, 한복, 한국음악) 종합 육성 지원	2,000	2,000	10,000

제1 주제
토론(1)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에
관한 토론문

김동윤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에 관한 토론문

김 동 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이하 한류)에 대한 해외(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됨.
- 앞서 발표한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한국 전통 문화(건축, 음악, 음식 등)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함. 이러한 긍정적 결과 뒤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 중요.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문화국가 정책 강력 드라이브 ⇒ 문화관광 강구 부상.)
-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음. 모든 분야를 골고루,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과 외국에서의 수요, 그리고 문화의 매가 트렌드에 부응하여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여전히 ‘한국전통문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함. 보다 커다란 틀과 거시적 전망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전통문화’는 과거의 ‘골동품’과 같은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살아 숨쉬는 문화이어야 함.
- 서구 문화강국들에서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발굴 재창조하고 있는가, 등의 비교 연구 필요함. 본 발제문에서는 일본의 마쓰리 등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 비교 연구의 대상과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전문가 집단도 한국전통문화에 국한 시키지 말고 다른 문화권의 전문가를 포함 시키는 것이 중요함. 비교 연구 대상과 접근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됨.
- 한 가지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 특히 전통문화예술을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와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시키는 경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단지 음식, 음악, 건축 등 유형 전통문화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 무형의 정신문화 영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 있음.

- 요즈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좋은 예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나라 사람들은 영적 가치와 차원을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신적 영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 생태적인 것의 결합이 필요할 때임. 한국 전통문화, 민속 토속문화야 말로 지극히 생태적이고, 디자인적이고, 웰빙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세미나 및 연구의 공조화가 필요함.
- 예컨대 1. 종묘제례, 정악 등 높은 수준의 정신성을 담보한 고급 전통문화 형태와 민간 삶에 뿌리내린 - 전통문화와 구별하여 - 토속 문화Folklore를 발굴 전시할 필요 있음. 그것은 박제화된 민속 토속 문화가 아니라 미래 생태지향적인 문화로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전통문화 민속 토속 문화 + 생태적 비전'을 연결시킨 신 개념의 전통문화관 제시 가능성.
- 2. 단순한 전통문화 축제가 아니라 요즈음 전 세계적 중요한 문화 현상인 한류,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차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경청에 감사합니다.

제1 주제
토론(2)

원 일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MEMO

제2 주제

한류와의 관계에서 본 전통문화 브랜드 제고방안
- 공예를 중심으로 -

손혜원 || 크로스포인트 대표

한류와의 관계에서 본
전통문화 브랜드 제고방안
- 공예를 중심으로 -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

21세기 공예를 꿈꾸는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온고이지신이 ‘온고’에 중심을 두었다면, 법고창신은 ‘창신’에 힘이 실려 있어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성이 느껴진다.

30년 넘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루면서, 특히 오래된 브랜드를 리뉴얼할 때면 늘 법고창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오래된 것에는 어디에나 소중한 가치와 불변하는 진리가 숨어 있다.

선조들의 위대한 공예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 시대에 살리는 것이다. ‘법고’하며 ‘창신’을 이루는 것이 21세기 공예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 ‘법고창신’을 영어로 ‘Constancy&Change’으로 의역해 본다. 여기서 ‘change’는 ‘변화’가 아닌 ‘진화’이다.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①계통(系統)을 받아 전(傳)함 ②이어 받은 계통(系統)이다.

이어받은 계통도 전통이지만, 그 계통을 받아 우리 시대의 것을 더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통이다. 옛것을 받아들이거나 지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가치와 성과를 선대의 기록에 더하여 후대에 전해야만 한다. 후대에 전할 만한 계통 있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시대의 가치에 충실해야만 한다.

‘전통’의 반대말은 ‘현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계통을 만들지 못해 전할 것이 없음’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예분야인 나전칠기 컬렉션을 시작한 것이 벌써 6년째에 접어든다. 처음에는 현대작가위주로 모았으나 차츰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컬렉션 보다는 좀더 나전칠기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2009년 ‘한국나전 19~21세기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나전칠기전시를 기획하였다. 또한 나전과 옷칠 작가를 계속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2011년 10월, 한국공예전문점 하이핸드코리아의 설립을 도와, 우리의 공예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이핸드코리아는 남산 소월길 본점을 비롯하여 서울역점과 강남 미래와희망점까지 3개의 지점으로 매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예유통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품목과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별도로 디자인연구팀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내외로 여러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우리 공예품 수집에서 전시로, 그리고 유통에 까지 이르고 보니 우리 공예의 문제점들이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된다. 정책, 디자인, 유통, 시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아직도 공예분야별 숙련된 장인들이 남아 있으니 늦었다 생각 말고, 차근차근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술을 전하면서 이 시대의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예작가들을 양성하는 공예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연연해서는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공예기술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품격 있는 작가가 품격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일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긴 안목과 계획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서둘러서 시행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21세기 공예전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연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제2 주제
토론(1)

시장 관점에서 본 전통공예

양선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통공예의 브랜드화는 시장에서 팔리는 전통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먼저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에서 전통공예품의 위치 등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 전통공예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시장이란

-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고 거래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
- 수요에 반응하는 기구.
- 수요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다.
-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생산을 촉진한다.

□ 공예의 시장 가치

- 공예는 장식적인 가치를 더한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점에서 시장 가격 형성 가능.
- 美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비실용적인 유일성의 예술은 합의된 시장 가격이 없다.

□ 전통공예의 시장 위치

- 공예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과 장식성.
-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예품을 사는 것.
- 그러나 전통공예는 장식성은 있으나 실용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물건.
- 기념품이나 전통공예 애호가 혹은 과거 재현 등 일정 규모의 수요가 존재.

- 시장에서선 예술품도 아니고 실용적 물건도 아닌 애매한 위치.
- 실소비자보다 정부와 일각의 보존정책을 통해 유지되는 시장.

□ 전통공예 가격 산정의 어려움

- 실용적인 물건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나 전통공예품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는 가격 비탄력적인 상품.
- 전통공예는 예술품이 아니어서 예술품의 가격산정 메커니즘을 따를 수 없다.
- 예술품은 예술가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만든 하나뿐인 작품인 반면, 전통공예는 장인이 옛 방식을 활용해 기존의 물건들을 재현.
- 예술가와 장인의 시장 가격은 차이가 있다.
- 시장에서선 전문가와 숙련공의 가격이 다르다.
- 노동력을 가격으로 환산할 때,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노동의 종류는 전문직과 예술가다. 전문직은 창의성과 비전제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창의적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팔기에 가격이 높다.
- 전통공예기술을 계승한 장인은 작업범주로 보면 숙련공이다. 시장에서 숙련공의 가격은 높지 않다. 전통공예 장인은 희소성이 있고,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인의 전통공예품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나 합리적 소비자는 명분을 위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협소하다.

[예술품 가격의 사례]

- 2010년 바젤 디자인아트페어에서 고가에 팔린 자개 벤치의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자동차 도장을 한 몸체(보디)에 동전모양의 자개를 붙인 작품
- 자개기술로 볼 때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격 형성

□ 전통공예의 시장화 전략

-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본 원칙은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공예는 장식성+실용성이다.
 - 전통공예기법을 활용한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방안 연구.

- 우리 전통공예의 강점은 소재와 솜씨다. 과거 공예품 재현에서 벗어나 소재와 솜씨를 활용해 전혀 다른 공예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폐쇄적인 장인들의 솜씨 계승과정에서 벗어나 솜씨를 개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미대나 중·고등학교에서 장인들이 솜씨를 전파하여 우리 고유의 제작기법을 일반화하는 작업 필요.

- 담장을 허물고 모든 공예분야의 협업 통해 새로운 전통공예 분야 개척해야 한다. 재현 공예의 한편으론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경계를 없애고, 전통공예 간의 경계도 허물고, 외국의 전통공예 분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

제2 주제
토론(2)

한류의 뿌리 - 전통의 가치 확산 방안

조희숙 ||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과장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회복, 전통문화를 자산으로 한 지역의 활성화, 국민들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전통문화, 국민들의 일상이 되는 문화로서의 가치 회복, 유치원에서 평생학습으로 삶의 지혜가 되는 교육자산으로서의 전통문화든, 지속적인 전통문화의 소비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 등이 과제라 할 수 있다.

□ 전통문화 : 품격 있는 가치 공유 및 확산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 스스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특히 교육환경)과, 사회적 연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재, 명인, 명장들의 재교육이 시급하다. 활발한 재교육과 각기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통해 우리만의 전통문화가 아닌 인류 모두에게 통용되는 인류의 자산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전통문화를 자산으로 한 지역의 활성화

지역연고산업은 그 지역만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성취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문화특성으로 오히려 지역문화가 소외받고 낙후되어 갈수록 퇴보하는 안타까운 양상을 띠고 있다.

각 지역의 풍습, 제례, 공예, 의식, 구술문화, 생활문화를 두루 갖춘 무형문화를 근간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성취와 문화적 특성을 자산으로 삼는 전통문화, 그 지역다움으로 문화적 성취를 이루는 특화도시로서의 성공사례 창출이 필요하다.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는 도시의 경우, 도시의 문화적

원천을 전통문화와 연결하고 확산시킴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주, 전주, 경주는 아시아문화, 전통, 역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각 지역의 전통문화는 자발적인 해외교류와 문화마케팅은 미흡한 상황이다.

도시경제와 산업, 정치와 행정, 관광과 예술 등의 영역에서도 전통문화적인 특성과 성향, 지향성을 담아내며 도시의 전통문화산업육성,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적 기반시설의 연계 등을 통해 도시를 마케팅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 또한 행정교류나 자매결연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중심의 민간교류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므로 전통문화의 해외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월드 프렌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속에 한인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전문 마케터를 활용 마케팅 지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일상이 되는 전통문화 육성 : 전통문화기획, 마케터 양성

각 마을과 도시에서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매개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은 전통의 단절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경험했으므로 좀 더 쉽고 즐겁게 전통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통문화 누구나 즐겁게 소비할 수 있으려면 후원 모임 등 지역민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자치센터, 교육공간, 축제, 지역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드라마나 가요, K-POP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반면 한국문화의 정통성이나 본질 정신문화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 연결고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을 궁금해 하고 한국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국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 전통문화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손쉽고 즐거운 전통문화 가이드 북
- 한국의 진수, 의식주, 전통 통과 의례,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문화소비 유도

□ **한국적 감성을 익히는 교육자산으로서의 전통문화 가치 제고**

전통문화교육이 즐거움을 주는 교육보다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육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를 볼 때 전통문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교육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일상과 매우 긴밀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한류 동반진출을 위한 융복합 파트너십 구축**

전통문화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소비 타깃을 분명히 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타깃별 전통문화마케팅 방안을 수립 각계각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러하면 태권도가 하나의 문화로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었던 비결은 국내의 강사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제안하고 소비를 통해 문화적 성취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전통문화의 지속적 확산이 가능하다.

더불어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있어 우리문화의 원형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분야 간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한류에 문화원형을 담아서 알리는 홍보 전략을 펼친다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마케팅도 가능하다.

□ **세계시장 개척의 성공사례 창출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문화의 근간은 사람이다. 문화는 교류를 통해 재생산, 확대된다. SNS는 인류공통의 관심사라면 순식간에 마켓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문제는 소비자와의 소통능력이다.

정신을 계승하되 형태는 변하고 진화한다. 소비자의 취향 또한 급변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분명한 타깃마케팅을 통해 지

□ 결과물

- 2008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전시 : 1억 5백만 원 매출(전시기간 중)
 - 실내건축가협회 디자인 어워드 문화부장관상 수상, 리빙디자인페어 좋은공간상, 수상
 - 엘지하우시스 공동프로젝트 진행(주방가구), 블루벨코리아 유통계약(백화점 입점)
 - 밀라노, 독일, 중국 초청 전시
- 2009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전시 : 8천 7백만 원 매출 (전시기간 중)
 - 리빙디자인페어 눈에 띄는 공간상 수상



* 2008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행사기간 : 2008. 3. 20~25(5일간)
- 행사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
- 사업내용 : 천년전주명품 Life style 작품 마케팅
- 특기사항 :
 - 국내 최대의 리빙페어 주제관에 초청 받아 전시 (행사주최인 디자인하우스에서 대관료 전액 지원)
 - 한국을 대표하는 리빙디자인으로 선정
 - 행복이 가득한 집, 월간디자인, 월간 인테리어, 엘르 등 거의 모든 관련잡지에 게재
 - KBS 다큐멘터리 (명인의 초상) 방영 및 YTN 아리랑TV 등에서 재조명



* 200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행사기간 : 2009. 3. 25~29(5일간)
- 행사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
- 사업내용 : 천년전주명품 Life style 작품 마케팅
- 특기사항 :
 - 국내 최대의 리빙페어 전시
 - 한국을 대표하는 리빙디자인으로 선정
 - 행복이 가득한 집, 월간디자인, 월간 인테리어, 엘르 등 거의 모든 관련잡지에 게재
 - KBS, YTN, 아리랑TV 등에서 재조명

* 대기업과의 공동제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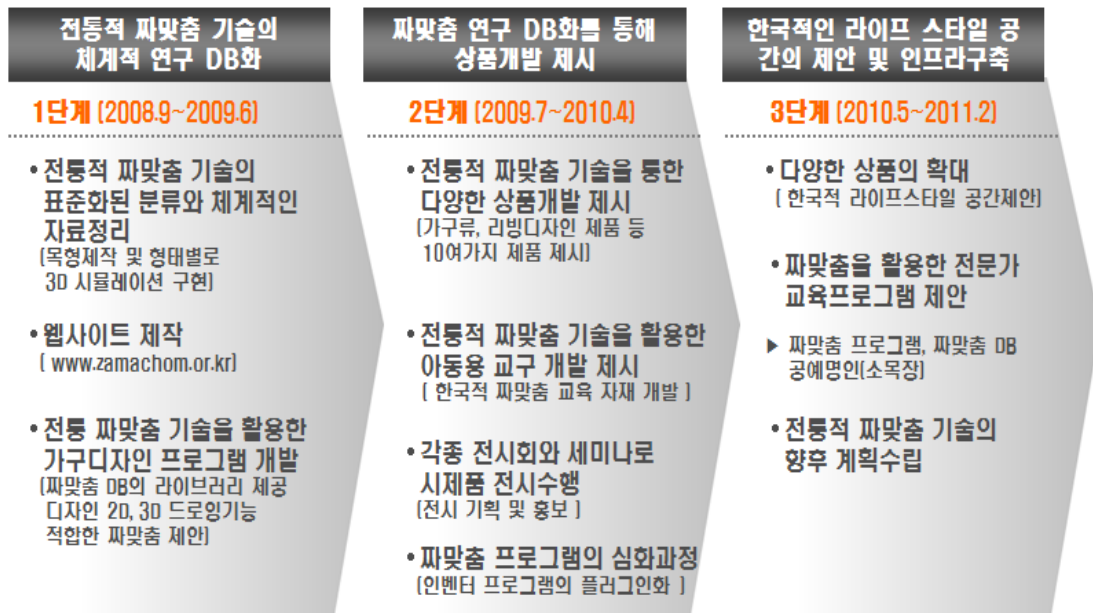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LG 리빙라인인 LG시스템가구 사업부의 공동작업
- 적용제품 : 전통가구짜임방식을 활용한 주방가구 공동작업
- 향후계획 : LG의 고객 타겟에 맞춘 무형문화재의 명품작업 전개(울질로 된 서랍재 작업) 대량생산화
- 마케팅 계획 : 국제적인 해외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LG 논현동 전시장에 전시 및 구매마케팅

사례 2 천년전주 전통공예기법(짜맞춤)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 천년전주 전통공예기법(짜맞춤)을 활용한 산업화 기획

- 국가 아이덴티티의 전략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
-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 전통소목장의 짜맞춤기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대적 콘텐츠개발을 위한 기술적 요소 개발
- 우리 전통 짜맞춤기법의 기술적 응용을 통한 현대적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 추진계획



□ 1차년도 추진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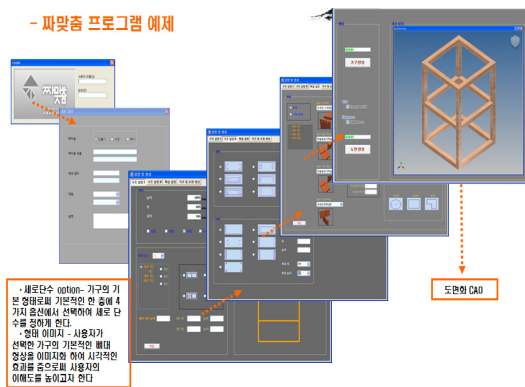
- 짜맞춤을 대중화· 산업화 시키기 위한 기초DB구축(76가지)
- 짜맞춤 대중화· 산업화를 위한 3D프로그램 개발
- 짜맞춤 난이도에 의한 아동용 교구 개발
- 짜맞춤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짜맞춤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전시

□ 주요 사업 결과물

○ 명칭 및 구조에 따른 분류(일부)

고유번호	명칭	구조	내용
A-1	숨은장부짜임 (반다지)		구멍을 내다지로 뚫지 않고 반쯤만 뚫어 촉끝이 보이지 않게 한다.
A-2	막장부촉짜임 (내다지)		다른 재목의 배면에 까지 뚫어 끼우게 한 긴 장부촉 내다지장부짜임이다
A-3	막이산지장부짜임		촉에 의한 견실성과 의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A-4	방두산지장부짜임		산지로 고정하는 짜임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하며 산지에 의한 의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A-5	대일장부짜임		장부 또는 구멍에 끼운 재의 옆에서 끼우는 췌기 짜임의 틈에 막거나 췌기걸에 덧대어 박는 췌기
A-6	벌림췌기장부짜임		장부끝을 패고 박아 장부가 빠지지 않게 하는 췌기 -췌기못에 의해 빠지지 않는 짜임, 췌기못에 의한 의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짜맞춤가구 설계 프로그램



○ 짜맞춤을 활용한 어린이 교구 개발



○ 짜맞춤을 활용한 소목교육 프로그램



○ 짜맞춤 교육 과정 교재(책자) 영상제작16차 교육 e-learning 시스템 적용)

- www.zamachom.or.kr 사이트에서 운영 계획



사례 3

한국 음식문화 관광 상품개발

□ 사업목적

- 한국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천년전주의 음식 및 우리고유 음식의 명품 식문화 공간개발로 한국 음식점의 통합형 아이덴티티 구축 및 관광 상품화

□ 사업내용

- 가장 한국적인 식생활공간에 어울리며 현대적 감각을 가진 관광상품 개발
- 전통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디자인화 가능한 관광상품
 - 예제) 韓式 Life style 식생활공간에 어울리는 소품, 소재, 가구 등
- 제품의 개별적인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패키지 형태의 상품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구현
- 국내 디자이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형문화재 및 장인, 공예가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제작하여 최소한의 샘플작업 진행

□ 추진사업

- 한식음식점 실내외 인테리어, 식문화 소품, 한국풍 서빙복, 음식 스토리텔링 등
 - 결과물 : 한국적 식문화 공간디자인 제안 2가지, 주방가구, 그릇세트, 서빙복, 음식 스토리텔링, 한지 등 소품 등 30여 가지
-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우러진 식문화 공간서비스의 구성·연출 및 매뉴얼 제작
 - 결과물 : 한식당 공간 리모델링 1곳, 국내외 마켓 참가
 - 우리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한국적 라이프스타일로 개발된 제품의 적절한 배치와 구성
 - 전통공예를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 소품의 배치와 포인트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연출
 - 사업대상 : 무형문화재 및 장인, 공예가, 공예업체

□ 주요 결과물

- 일반형 인테리어 제안(1)



- 한옥형 인테리어 제안(2)



○ 시범 리모델링 사업 : 40평 내외/ 1개소

- 공모를 거쳐 시범음식점 1개소 선정(실시설계비지원/선정업체 시공비 100% 부담)



○ 상품 개발사업 : 공간 인테리어 상품 총 30종



○ 상품 전시 경북궁 ‘자경전’ 앞마당



한국 음식문화 관광 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사업

- 한식당을 중심으로 개발된 메뉴얼을 보급함
- 해외공간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 지속사업인 연계 필요

○ 기타 이후 추진사업



해외공간 리모델링 사업

- 리모델링장소: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점건실 18평,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 점건실 33평
- 사업내용: 해외 한국대사관의 점건실을 한국적리이프스타일로 리모델링을 추진

사례 4

필라델피아 크라프트쇼 초대국가관 운영

□ 사업목적

- 미주지역 공예품 시장 개척 및 유통기반 조성
 - 미주지역의 공예전문전시회인 필라델피아 크라프트쇼를 운영하는 필라델피아미술관으로 부터 2009년 초대국가관 운영을 제안받았고, 이를 통해 미주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음.
- 한국 공예작가의 적극적인 해외마켓 진출 지원을 통한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전시기간 : 2009년 11월 11일(수) ~ 15일(일) (총 4일)
- 진흥원 주도 하에 경쟁력 있는 공예작가 모집
- 참가신청 작가의 프로필, 포트폴리오를 전시회 주최기관인 필라델피아미술관에 제출, 주 최측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26명 선정
- 참가 경비 일부지원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 및 전시기획 지원 등을 통하여 직접 지원과 매개지원의 병행으로 지원 효과 극대화
- 진흥원과 필라델피아미술관의 업무조율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 미주지역의 갤러리 관계자 및 수집가들에게 작가발탁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공예작가의 해외진출의 계기마련 / 스타작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한국공예 이미지 제고
- 국내외 공예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
- 한국공예산업 홍보를 통한 해외공예작가의 공예트렌드페어 역할가 유도

사례 5

한국문화원 개원(폴란드) 한류 프로젝트

□ 행사개요

- 중유럽 최초로 설립되는 한국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문화 집중 홍보를 위한 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주재국 국민 대상 한국문화소개 및 국가브랜드 제고
- 한국의 전통문화전반을 소개할 수 있는 ‘한스타일’ 전시 및 공연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 기간 및 장소 : 2010. 1. 27(수) - 1. 30(토)/ 주 폴란드한국문화원 신청사
- 초청대상 : 주재국 주요 인사 및 국민, 교민 등

□ 행사 세부내용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1. 27(수)	개원식	17:00~19:30		
1. 28(목)	전시 및 체험	10:00~16:00	부채 및 한지공예품 전시 한지공예 및 목판 체험	전주팀
	시 연	12:00~13:00	한식 시연(비빔밥 강좌)	김연임
	공 연	17:00~17:30	국악 공연	국립국악원
	한복패션쇼	17:30-18:00	한복갈라쇼	김혜순팀
1. 29(금)	전시 및 체험	10:00~16:00	부채 및 한지공예품 전시 한지공예 및 목판 체험	전주팀
	공 연	17:00~17:30	한국무용(살풀이, 창작)	두댄스
	강 좌	17:30~18:30	한국의 정신(시서화)	김병기 전북대 교수
1. 30(토)	전시 및 체험	10:00~14:00	부채 및 한지공예품 전시 한지공예 및 목판 체험	전주팀
	공 연	14:30~15:30	서예퍼포먼스 및 한국무용	두댄스, 무용팀

□ 결과물

○ 폴란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 내부



○ 공연



○ 전시



○ 체험



●●● MEMO
